

로어어휘의 습득과 숙련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리 문 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어수업에 잘 참가하며 짬시간을 리용하여 외국어단어를 많이 외워야 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는 단어를 많이 외우는것이 기본입니다.》(《김정일전집》제1권 221페이지)

외국어교육의 목적은 외국어에 대한 지식교육과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실천교육을 잘 결합시켜 학생들이 해당 외국어로 자기의 사상과 의도를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신속정확히 리해할수 있게 준비시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외국어로 언어교제를 능숙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주는것이다.

외국어교육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언어교제를 실현하는 여러가지 교제수단들인 어음, 어휘, 문법, 문체, 철자법, 문화언어학적인 지식 등에 대한 교수를 교육학적원리와 언어규범, 해당 외국어의 내적인 합법칙성에 맞게 잘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로어의 어휘적수단들에 대한 교수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 다시말하여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떤 단계를 거쳐 어휘교수를 진행하고 어떤 어휘를 선택하여 어떻게 의미를 설명하며 어휘최소량을 어떻게 얼마로 정하고 어휘습득의 최량화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려고 한다.

외국어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습득하여야 할 여러가지 내용들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어휘이다. 그것은 어휘를 소유하지 못하고서는 언어를 습득할수 없기때문이다.

외국어학습에서 어휘소유가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어휘가 외국어교육에서 첫 출발점으로 되고 모든 교제활동에서 필수적이기때문이다.

로어교육은 그 체계와 언어행위의 기능에 따라 발음교수로부터 시작하여 어휘교수, 문법교수, 읽기교수, 쓰기교수, 듣기교수, 말하기교수 등 여러가지 교수활동으로 실현되는데 이 모든 교수활동은 다 어휘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

그리고 로어교제활동도 어휘를 떠나서는 실현될수 없다. 아무리 문법지식이 많고 깊어도 어휘지식이 안받침되지 않으면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없다.

외국어학습에서 어휘소유가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외국어학습에서 어휘적부담이 매우 크기때문이다.

어휘적부담이 매우 크다는것은 로어단어를 완전히 그리고 정확히 습득하기가 아주 힘들다는것으로서 이것은 로어어휘량이 문법에 비할바없이 방대하고 로어의 매 개별적인 어휘적단위들이 복잡하기때문이다.

17권으로 된 《로씨야표준어사전》(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에 오른 단어량은 8만개이상이나 된다. 그리고 어휘적단위로는 개별적인 단어(실례로 улица—거리, жить—살다, МГУ—모스크바국립종합대학, на—에서, 예로)나 공고한 단어결합(железная дорога—철길, произвести впечатление—감명을 주다, 인상을 남기다), 굳어

진 표현들(Как дела? —일이 어떻게 되가요? Счастливого пути! —잘 가시오!)도 될 수 있다. 이것은 어휘습득에서 큰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그리고 로어어휘의 의미습득도 큰 난점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단어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기본의미(본래의미)와 함께 파생적의미(갈라진 의미)가 있고 어휘적의미와 함께 문법적의미도 있으며 문리대상적의미와 함께 표현문체적의미도 있고 사회문화적배경을 매우 진하게 담고있는 의미와 함께 그것을 적게 또는 전혀 담고있지 않는 의미 등 실로 다종다양한 의미가 체현되어있다. 이와 함께 로어단어와 조서단어들이 의미에서 차이나는것도 로어어휘습득에서 큰 부담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실례로 로어에서는 우리 말의 《팔과 손》, 《형과 동생》을 한개 단어로써 표현하며 (рука, брат) 우리 말의 《교원》은 두개의 단어 учитель, преподаватель로, 《풀다》는 развязать(맨것을 풀다), распутать(헝클어진것을 풀다), размотать(감은것을 풀다), распаковать(포장한것을 풀다), решать(문제를 풀다) 등 여러가지 단어로 표현된다. 이런 측면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로어의 어휘자료들을 쉽게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어렵게 한다.

이로부터 학생들에게 로어어휘를 정확히 습득시키고 공고하게 숙련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로어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어휘를 전수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로어로 진행하는 언어활동과정에 로어어휘를 정확히 사용할수 있게 하기 위한다. 그러자면 로어어휘에 대한 깊고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것과 함께 언어교제에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로어어휘습득에서 나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휘교수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자면 학생들이 어휘를 부단히 숙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휘숙련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에 맞게 어휘적단위를 선택하고 그것과 다른 단위들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은 습관적으로 수행되면서 해당 어휘적단위가 정황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며 언어활동이 진행될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조건으로 된다.

어휘적단위를 선택리용할 때 필요한것은 첫째로, 어휘적단위를 상기해보고 목적과 의도에 맞게 기억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불러내는것(호출조작)과 둘째로, 해당 어휘적단위를 앞선 혹은 뒤에 오는 단위들과 순간적으로 결합(결합조작)시키면서도 그 결합이 언어학적으로 맞을뿐아니라 해당 정황에도 부합되게 하는것이다.

호출조작과 결합조작들은 정황판단 및 식별과정과 함께 진행된다. 만일 무의식적으로 선택된 단어가 정황에 맞지 않으면 어휘적단위를 벌써 인위적으로 선택하거나 결합을 의식적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어휘숙련이 잘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어휘숙련을 목적으로 하는 어휘작업의 단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어휘교수를 진행하려면 어휘숙련의 구성요소 즉 어휘습득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교원의 측면에서 볼 때 어휘교수의 과제로 되지만 학생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습득하고 숙련하여야 할 내용으로 된다.

로어어휘를 습득시키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고 볼수 있다.

첫째로, 청취능력의 숙련 즉 단어에 대한 듣기와 발음을 숙련시키는것이다. 이것들은 호상 련관되어있으며 발음을 통하여 듣기를 정확히 하였는가를 검열한다.

둘째로, 직관능력의 형성 즉 단어를 듣고 발음하면서 대상에 대한 시각적인 영상과

표상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시각적인 영상은 직관물이나 동영상에 통하여 직접적으로도 얻을수 있고 설명이나 여러가지 참고서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얻을수 있으며 표상은 개별적인것을 통해서도, 일반적인것을 통해서도 가질수 있다.

셋째로, 련상능력의 형성 즉 단어와 다른 단어부류들과의 련상적인 련계를 지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어의 등급에 따라 그리고 한 단어에 대한 듣기와 발음이 다른 단어에 대한 듣기와 발음들에로 이전하려는 경향에 의하여 생리적으로 설명된다. 련상에 의하여 언어교제에서는 공고하고 자유로운 단어결합들이 만들어진다.

넷째로, 결합구조의 공고한 습득 즉 단어의 어휘의미론적결합구조를 숙련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이 결합들이 해당 단어로 표시된 대상의 기능과 속성, 그것과 다른 대상들과의 련계 등을 반영하기때문이다.

다섯째로, 정황판단능력의 형성 즉 단어와 대화자들의 호상관계체제인 정황들과의 호상련관성을 파악하는것이다.

어휘숙련에서는 교제환경과 조건에 알맞는 어휘를 선택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어휘를 선택하기에 앞서 대화상대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이야기가 오고가는 장소와 시간관계, 대화공간거리 등과 주어진 교제분위기 같은것에 관심을 돌리고 정황과 주어진 분위기에 맞는 어휘를 골라쓰는데 습관되어야 한다.

로어어휘를 빨리 습득시키고 정확히 숙련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로어어휘습득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따르는 어휘교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로어어휘습득은 로어단어의 기본요소인 음성적특성과 의미적측면, 문법적관계를 하나로 통일시켜 소유하는 과정, 다시말하여 로어단어의 말소리와 글자의 특성을 그 의미와 하나로 통일시켜 옹게 파악하고 공고하게 기억하며 기억했던것을 임의의 언어정황에 맞게 잘 활용할줄 알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로어를 가르치는 교원들과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로어어휘습득의 특성과 그에 따르는 어휘교수원칙은 우선 로어교육의 주체인 교수자와 학생들이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고있으므로 어휘교수에서 조선어를 적극 리용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교원과 학생들은 다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고있으며 모국어를 이미 습득한 상태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모국어단어의 의미와 개념을 정확히 알고있고 그에 대한 표상도 공고하게 가지고있으며 해당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결합될수 있겠는가를 구태여 설명하지 않고도 관습적으로 정확히 단어결합과 문장을 구성한다. 로어교육의 주체인 교수자와 학생이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고있다는 객관적인 현실조건에 맞게 로어어휘교수에서 모국어인 조선어를 적극 리용하는것은 어휘교수의 원칙으로 된다.

로어어휘습득의 특성과 그에 따르는 어휘교수원칙은 또한 학생들이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로어어휘들과 그 결합관계를 정확히 알려주고 공고화시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로어와 조선어에서 부등가적대응이 이루어지는 어휘들을 기본으로 하여 교수를 진행하는것이다.

로어와 조선어단어의 등가적대응은 두 단어의 어휘적의미가 완전히 일치할 때 실현된다.

로어와 조선어에서 완전히 대응되는 단어와 단어결합들로는 사람이름 또는 지명을

표시하는 로어고유명사들(Европа—유럽, Азия—아시아, Маркс—맑스, Ленин—레닌)과 과학기술용어들(водород—수소, кислород—산소, слепая кишка—맹장, воспаление лёгких—폐염, суффикс—뒤붙이, фонема—음운, социализм—사회주의), 월, 요일을 표시하는 단어들과 수사들(февраль—2월, понедельник—월요일, пять—다섯, тысяча—천), 기타 일부 단어들(делегация—대표단, вчера—어제, сегодня—오늘, вешалка—옷걸이)이다. 이런 단어들의 의미습득은 교원의 설명이나 로-조사전을 리용한 대역을 통하여 간단히 할수 있다.

그러나 로어어휘들속에는 조선어단어들과 의미폭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례: 신다 — надеть обувь — 신을 신다
 끼다 — надеть очки — 안경을 끼다(쓰다)
 입다 — надеть пальто — 외투를 입다
 매다 — надеть галстук — 넥타이를 매다
 таять — снег таять — 눈이 녹다
 плавиться — металл плавиться — 철이 녹다
 растворяться — сахар растворяться — 사랑이 녹다

이와 같이 로어와 조선어단어들의 의미폭이 일치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두 언어의 어휘적단위의 대응관계는 복잡하게 실현되였다. 이런것들은 로어어휘습득에서 모국어의 간섭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로어의 규범을 어기는 현상을 가끔 초래한다.

다른 실례로서 로어와 조선어단어들이 기본의미에서는 등가적대응을 이루지만 기타 의미에서는 각이한 단어들이 대응되는 경우들이다. 실례로

широкая улица — 넓은 거리, широкое поле — 넓은 벌, высокий дом — 높은 집, высокая гора — 높은 산, длинная улица — 긴거리, длинная река — 긴 강

그런데 현실의 동일한 현상을 표시할 때 이런 기본의미들이 일치하지 않아 어휘적대응이 특수하게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례: 넓은 이마 — высокий лоб, 긴 줄 — большая очередь, 긴 시간 — долгое время, 큰 키 — высокий рост, 깊은 잠 — крепкий сон, 매우 감사하다 —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특히 조선어의 한 단어가 로어단어의 분화된 의미와 대응할 때 모국어의 언어의식의 작용이 크며 그에 따라 단어들의 결합을 틀리게 만들곤 한다. 실례로

《심다》 — посеял кукурузу(강냉이를 심었다), посадил дерево(나무를 심었다)

《뽑다》 — вытащить(вырвать, удалять) зуб(이를 뽑다), вынуть занозу(가시를 뽑다), раскупорить бутылку(병마개를 뽑다)

때문에 로어어휘습득에서는 이런 어휘들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그것이 리용되는 문맥조건을 알려주고 그것을 습득시키고 숙련시키는 원칙에서 어휘교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로어어휘를 빨리 습득시키고 정확히 숙련시키려면 다음으로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어휘교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로어어휘교수에서는 우선 단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우리 나라 로어교육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일부 로씨야의 언어학자들은 직관물보여주기를 통한 의미해석이 대상적의미를 가진 단어와 관련하여 아주 우월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 수법이 《초기교육단계에서 제일 널리 리용되고 있으며 **цветок, стол, часы, диван, ковер** 등과 같은 단어들을 직관물을 보여주면서 의미 해석하는것은 대상범주의 구체성과 표현성을 반영한다.》고 하였다.(Проблемы описания и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й лексики. И.П. Слесарева. М., 1980. с. 144)

그러나 이 의미해석수법이 우리 나라 로어교육조건에 맞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없다. 앞서서도 말한것처럼 교수자와 학생이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고있다는것, 학생들의 언어의식속에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사실들에 대한 표상이 이미 서있다는것은 **цветок, стол, часы, диван, ковер** 등과 같은 단어들을 구태여 직관물을 보여주지 않고 간단히 《꽃, 책상, 시계, 소파, 주단》이라고 간단히 대역을 주기만 하여도 학생들이 쉽게 해당 로어단어의 개념과 의미를 알수 있기때문이다.

물론 이 수법을 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로씨야의 민족문화를 반영한 단어들이나 의미적인 등가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로어단어들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직관물을 보여주면서 어음전사법으로 대역을 줄수 있다. 또한 일정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숙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습에서는 동의어나 반의어, 말뿌리가 같은 단어, 주석 등을 리용하여 로어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수법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로어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것은 중간교육단계와 높은 교육단계에서 로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도움을 줄수 있다.

단어조성적인 분석은 공통적인 말뿌리와 접사들을 성분화하는 방법으로 파생된 단어를 단순단어나 한 어군의 다른 파생어들과 호상 연관시키는것을 도와준다.

주석은 알고있는 어휘적단위들을 리용하여 묘사의 방법으로 단어의 의미를 밝히는것이다. 주석에 의한 의미해석은 1차근사로 특징적인 의미와 의미요소들을 구별하면서 단어의 개념범주와 그의 기본의미측면을 밝혀준다.

단어들을 대비하는것은 모르는 어휘적단위의 의미를 이전에 배운것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의 공통성(동의어)이나 차이(반의어)에 기초하여 찾는것을 도와준다. 동의어나 반의어를 리용한 의미해석은 단어의 련상관계적특성을 밝혀준다. 다시말하여 **использовать — применять, употреблять**와 같이 동의어들을 리용한 의미해석은 련상에 의한 의미적특성을 반영한다.

이상의 의미해석수법들은 개별적으로 리용되지 않고 서로 제약하고 보충하면서 종합적으로 리용된다. 그것은 이 수법들이 호상관계하고있는 의미측면들이 단어의 의미속에서 호상관계되어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로어교육의 현실적조건에 맞는 가장 빠르고도 합리적인 의미해석방법은 대역을 주는 방법과 문맥을 리용한 방법이다.

대역은 다른 언어를 수단으로 한 직접적인 의미전달방법이며 문맥을 통한 의미해석은 단어의 통합론적인 련계와 그것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정황들을 반영하고있는 방법이다.

사실 개별적단어의 의미쪽은 그 단어가 여러가지 문맥속에서 나타내는 뜻의 총체이다. 따라서 단어의 구체적의미는 단어결합에서 실현되며 두 언어에서 단어뜻의 대응관계는 구체적인 문맥속에서 실현되는것만큼 문맥을 통하여 습득시켜야 한다.

외국어교육에서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그 단어가 쓰이는 문맥적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소유시키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실례로 단어 **раскупорить**를 설명없이 조선어단어 《뽑다》, 《열다》와 대응된다고만 이해하면 **открыть**(열다), **вытащить**(뽑다) 등과 어떻게 구별하여 쓰겠는가 하는것이 명백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의미를 《(마개나 뚜껑 같은것을) 열다, 뽑다》와 같이 설명하는것이 필요하며 더우기 이 단어가 쓰이는 문맥을 밝히는것이 중요하다(**раскупорить бутылку** — 병마개를 뽑다, **раскупорить бочку** — 통을 열다).

단어결합은 단어의 뜻이 실현되는 문맥조건 of 하나이며 단어의 뜻은 이 결합속에서 단어 호상간의 의미론적작용에 의하여 하나의 규정된 뜻을 나타낸다. 다의성은 문맥밖에서 존재하며 문장안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뜻만을 나타낸다. 더우기 다의적단어의 뜻을 두 언어에서 대비할 때 그 등가적대응이 각이한 단어로 실현되는 조건에서 단어의 뜻이 정확히 실현되는 단어결합을 단위로 단어를 습득하는것은 다의적단어를 소유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로 된다.

사실 단어 **идти**가 표시하는 여러개의 뜻(**человек идёт** — 사람이 간다, **дождь идёт** — 비가 온다, **занятие идёт** — 수업이 진행된다, **пальто идёт** — 외투가 맞는다)을 비교하면 그 여러개의 등가물인 《가다 — 오다 — 진행된다 — 맞다》를 개별적으로 습득하는것보다 이 뜻이 실현되는 문맥 즉 단어결합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로어와 조선어의 어휘적대응현상을 소유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로어와 조선어의 단어체제안에 있는 어휘적단위가 서로 대응하는 등가적인 단어를 가지고있지 않음으로 하여 두 언어에서 단어와 단어의 등가적대응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로어단어의 의미를 다른 말로 대역을 줄수 있다. 이 경우 대역에서 여러가지 보충적인 언어수단을 리용하면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대역수법은 첫째로, 해당 단어를 어음전사법에 의하여 대역을 주는 방법(**совет** — 쏘베트, **большевик** — 볼셰비크, **колхоз** — 꼴호즈, **самовар** — 싸모와르), 둘째로, 해당 단어에 대응하는 어휘적단위가 없을 때에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근사한 대역을 주는 방법(**обрезать** — 끝이나 가장자리를 자르다, **распилиться** — 톱으로 쪼개다, **рюмка** — 발이 달린 유리술잔, **домик** — 작은 집), 셋째로, 해당 단어의 의미를 대역으로 정확히 나타낼수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풀어서 설명을 주는 방법(**сарафан** — 로씨야농촌녀성들의 소매없는 옷의 한가지, **пирог** — 고기, 과일 등을 넣어 만든 만두) 등이다.

단어의 의미는 매개 나라 인민의 생활과 밀접히 련결된 배경을 가지고있으며 이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것은 해당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례를 들어 단어 **октябрёнок**는 《빼오네르, 입단준비시기의 7—11살의 아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이 단어의 배경에 있는 쏘련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정확히 리해할수 없다. 그러므로 매개 인민에게 고유한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의 대응을 실현할 때 그 현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형성하기 위하여 단어의 의미에 담겨져있는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단어의 의미를 문맥밖에서도 리해할수 있어야 한다. 계획된 일정한 문맥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리해한다는것은 해당 단어의 확대된 의미폭을 리해하였다는것, 따라서 련상적, 파생적, 통합적련계분야에서 다른 단어들을 거기에 《보충》할수 있

는 능력이 확립되었다는것을 말한다.

로어어휘교수에서는 또한 어휘최소량을 바로 정해야 한다.

어휘최소량선정문제는 각이한 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이 습득하여야 할 최소어휘량에 대한 문제로서 외국어교과서편성과 외국어교육의 목적실현과도 려관된 중요한 문제이다.

외국어교육에서 어휘최소량이란 교수의 목적과 과업, 학생들의 지식수준, 연령심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소유하여야 할 적극적어휘들의 량이다.

어휘최소량은 언어교제활동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단어들의 최소량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휘최소량은 학생이 일정한 시간안에 습득할수 있는 최대량이다. 때문에 교수어휘최소량에서는 모든 고어(낡은 어휘)들과 일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리해하는 전문화된 용어들, 결말과 방언어휘들은 제외시킨다. 어휘최소량에는 회화체와 공식사무문체 등에서 쓰는 속어들도 들어가지 않으며 중성문체에서 쓰이는 어휘들이 들어간다. 로어교육의 시작단계에서는 어휘최소량에 합성용어들(доменная печь, политическая экономия)과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одержать победу와 같은 류형의 공고한 단어결합들과 같은 어휘적단위들도 들어간다. 적극적어휘와 소극적어휘의 한계를 규정하고 잠재적인 어휘형성의 방도를 보여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것은 학생들이 단어조성의 기본모형을 알게 하는것이다. 실례로 читать — чтение, писать — писатель, дружба — дружный, история — исторический 등이다.

어휘최소량을 선정한다는것은 로어의 어휘의미체계의 본질적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주어진 교제령역에서 통신적목적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최소량의 어휘를 선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어휘최소량에 들어가는 적극적인 어휘들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미원칙. 선택되는 단어들은 학생들이 외국어강의에서 취급하게 되는 주제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표현하여야 한다.

2) 결합성원칙. 보다 큰 결합성을 가진 단어들은 결합성이 드문 단어들보다 더 잘 리용된다. 왜냐하면 적극적어휘의 량이 제한되어있지만 그것들이 보다 다양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리해하게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결합성이 높은 단어들을 선택하여야 한다.

3) 문체의 구속을 받지 않는 원칙. 즉 단어가 중성체에도 문학문체에도 회화체에도 서적체에도 다 들어가는 원칙. 어휘최소량에는 방언과 결말, 전문용어부류에 관계되는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전문용어들은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대학들을 고려하여 습득하여야 할 전문용어어휘최소량에 들어간다.

4) 빈도수원칙. 이 원칙에 따라 어휘최소량에는 전문교육분야와 일상생활분야, 사회정치분야, 사회문화분야 등의 교제분야들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들어간다.

5) 단어조성능력원칙. 최소량에는 접사들을 리용하여 제일 많은 량의 다른 단어들을 조성할수 있는 단어조성적으로 제일 생산적인 단어들만이 들어간다.

6) 교수론적원칙. 교수교양의 통일적과정으로서의 로어교수에서는 교수교양적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단어들을 선택하여야 한다.

어휘최소량의 범위는 교수의 단계나 목적에 따라 규정할수 있다.

로씨야의 연구자들은 전문적으로 선택된 3 000개정도의 어휘들만 알고있으면 임의의

중성체본문을 95% 이해할수 있다고 보면서 단계별에 따르는 로어어휘최소량을 주었는바 여기에는 가장 널리 쓰이는 로어단어들이 500개부터 3 500개까지로 되어있다.(Лексические миниму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В. Морковкина. М., 1985)

로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초단계에서 2 300~2 500개의 어휘최소량을 선정할수 있으며 대학의 낮은 단계에서는 이밖에 700~800개정도의 전문어휘를 선정할수 있다.(《로어교수리론》, 배홍수, 주체104(2015)년, 35페이지)

선정된 단어들은 말소리외피(말소리구성, 소리마디구성, 력점구조), 단어의 형태구조와 단어조성구조와 같은 단어의 외적측면과 함께 단어의 형태변화와 같은 문법적측면, 단어가 표시하는 내적측면인 단어의 의미, 단어의 결합성과 같은 문장속에서 활용되는 어용적측면을 다같이 통일적으로 습득시켜야 한다.

로어어휘교수에서는 또한 어휘습득을 최량화하여야 한다.

최량화란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효과와 결과를 얻는다는것으로서 어휘습득을 최량화한다고 할 때 그것은 적은 시간을 들여 많은 어휘들을 습득한다는것, 다시말하여 어휘습득의 질과 속도를 최대로 높인다는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학생들의 어휘습득을 최량화하자면 그들이 리용하는 교과서와 전공원서의 자료들을 최량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로어자료를 리용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빨리 얻으려면 될수록 사전을 적게 리용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필요한 어휘예비를 축적한 기초에서만 가능한것이다. 통계언어학의 자료에 의하면 아무리 긴 본문이라도 그 본문의 96~96.5%는 3 500~4 000개의 제일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로 이루어졌다.(Хрестоматия по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Л.В. Московкин, А.Н. Шукин, Москва 2010, 156) 따라서 이 3 500~4 000개의 단어들만 습득하면 본문에 4%에 달하는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사전을 제일 적게 리용하거나 또는 전혀 리용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것이다.

교과서와 전공원서의 자료를 최량화하는 문제는 량과 질의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최량화의 량적측면은 본문의 어휘난도가 어떠한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모르는 어휘의 비율이 얼마로 되어야 하고 어휘적인 난도의 변화가 어떠한가 하는것이다.

최량화의 질적측면은 단위시간당 최대로 습득할수 있는 새 단어의 개수가 어휘를 어떻게 조직하고 그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것이다.

실험은 교수자료로 리용되는 새 단어의 의미구조와 형태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르칠 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어휘를 기억하는 과정을 최량화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외국어단어의 습득을 쉽게 해주는 기본요인으로는 1) 길이가 짧은 단어(짧은 단어는 비록 기억에 공고하게 남지는 못해도 긴 단어보다 더 쉽게 습득된다.), 2) 단어의미의 구체성(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추상적인 의미의 단어들보다 더 쉽게 습득된다.), 3) 단어조성적으로 명확한 파생성, 4) 단어의미의 단의성들이다.

외국어어휘습득을 어렵게 하는 기본요인은 이와 상반되는 특징들이다. 그것들은 바로 1) 단어의 길이가 긴것, 2) 단어의 의미가 추상화된것, 3) 단어조성적으로 아리송한것, 4) 단어의 다의성, 5) 조선어에 로어어휘에 대응하는 등가물이 없는것 등이다.

때문에 외국어교과서편성과 교육내용구성에서 어휘교수자료들을 선택할 때에는 짧은 단어로부터 긴 단어로, 구체적인 단어로부터 추상적인 단어로, 단어조성적으로 명백한것으로부터 명백치 못한 단어로, 단의적인 단어로부터 다의적인 단어로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어휘습득을 최량화할수 있다.

로어어휘교수에서는 이외에도 교원이 배워주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매 학생들의 로어소유수준과 그들의 개성적인 특성들을 잘 알며 예민한 교육자적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 교원에게 매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어휘교수를 더 합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들을 암시해주기때문이다. 사실 로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로어습득수준은 각이하다. 실력이 높은 학생들은 로어로 의미해석을 주어도 별일이 없지만 중간부류의 학생들은 자기가 정확히 이해하였는가를 사전을 통해 자체로 검열해보아야 하며 제일 약한 학생들은 로어설명을 아직 이해할 능력이 없으므로 조선어로 설명을 준 두 언어사전 즉 로-조선어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조건에서 교원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잘 이해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학생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어휘설명과 어휘숙련연습을 학급의 특성에 맞게 때로는 집체적으로, 때로는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휘교수의 원리와 방법들을 더 깊이 연구완성하고 교수활동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높이고 그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시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 어휘습득